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출판연구소 심포지움서 이어령 김언호씨 등 주제발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심포지움이 지난 9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출판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심포지움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주제하에 이어령 전문화부장관이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김언호 한길사 대표가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방향」을, 정옥 대원동화 대표가 「문화정보단지 건설의 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이어령씨와 김언호씨의 주제문을 발췌 요약한다.

멀티미디어와 결합하는 정보도시 돼야

이어령— 도시는 먼저 기획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이전에 기획이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맞추어서 살게 된다. 이러한 기획은 오래동안 서양의 문명 위주로 발달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서양의 합리주의만 가지고는 안된다. 여러 산업단지와 아파트단지들이 기능이나, 미관, 주거환경에 있어서 성공한 예는 별로 없다. 이런 의미에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는, 단순히 출판의 생산, 시설, 유통기능의 도시이긴 하지만, 한번도 이룩하지 못한 단지문화와 21세기 도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요성을 갖는다.

정보도시 건설의 어려움은,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화의 척도나 낙차를 보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정보는 불가시의 세계에 있는 것이어서 외형위주의 도시건설과는 달리 기능과 정보를 함께 가질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야만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출판단지는 문자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복합도시가 되어야 한다. 멀티미디어는 통신수단만이 아니라 생산양식과, 필자, 출판사, 독자들이 어울릴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판단지는 최첨단의 정보발신지가 되어야 한다. 정보하이웨이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되고 역사가 생긴다. 그러면 출판이 다른 미디어의 선두주자가 돼서 계속해서 출판이 모든 매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 공유화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서 강력한 중앙터미널이 각 출판사에 정보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화하면 출판 비용이 떨어질 수 있다.

두번째, 출판단지가 축제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마당은 여러가지 기능을 한다. 즉 출판단지의 어느 한 구간에 복합적인 공간처리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시와 이벤트가 항상 이루어져야 하며, 24시간 출판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공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은 교육이라는 측면이나 창조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거기서 즉각적인 정보를 받음으로써 책 자체가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모순을 통합하는 의미로서의 창조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출판인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어야 한다. 출판사가 한 곳에 집중되면



지난 9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본구상 심포지움.

정보누설, 획일화, 경쟁심화 등 부정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아파트단지처럼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인 분위기를 주는 밑실이 되어야 한다.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개개인이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출판단지 건설의 어려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출판사가 특성을 가져야 하며, 개개의 주체처럼 특징을 갖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준형을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원고가 그대로 출판사 인쇄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출판사들이 표준을 정해야 한다. 전산화 기계화는 표준화작업에서 시작된다.



출판단지는 제멋대로 해야 할 것과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강

력한 시설물 규제, 간판규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조화 속에 지적 분위기가 나는 곳이어야 한다.

국가공단으로 개발해야 비용 절감

김언호— 21세기는 지식 정보시대다. 이제 책의 문화에 대한 정당한 인식과 실천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식과 정보는 수집, 창출, 수용, 전송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산업사회 또는 정보사회에서 '책의 문화'가 고속으로 그 개념과 영역과 기능을 확충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출판문화는 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발전이나 경제발전의 가장 유용한 토대이자 동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화적 문명적 단계에 서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다

<p>글동산 세계 명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발장 로미오와 줄리엣 톰 소여의 모험 시턴 동물기 파브르 곤충기 안네의 일기 작은 아씨들 나의 타임캡슐 나무 닐스의 신기한 여행 	<p>보물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국지(상, 하) 어린 왕자 해저 2만 마일 사랑의 학교 탈무드 이솝 이야기 오디세이아 갈매기의 꿈 아라비아안 나이트(I, II) 	 <p>글이 있는 책</p>  <p>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TEL / 336 · 5804 333 · 9991, 2 FAX / 333 · 9996</p> <p>도서출판 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과 바다 그리스 로마 신화 돈키호테 <p>글동산 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야기 한국사(I, II) 한국 전래 동화(상, 하) 어린이 명심보감 중국의 옛날 이야기 인도의 옛날 이야기 프랑스의 옛날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가지 유명한 이야기 이야기 목민심서 이야기 세계사 <p>글동산 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화 고사서어 만화 명심보감 만화 사자소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화 채근담 만화 천자문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 김삿갓 만화 쥐뿔 만화 일리아드 만화 오디세이아 만화 임궽정 만화 홍길동 만화 박문수
--	--	--	--	--	--

출판사 등록규정 대폭 간소화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령 공포

문화체육부는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령을 지난 8월 31일 대통령령 제14372호로 공포했다.

문화체육부가 새로 마련한 개정령은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즉 출판사 또는 인쇄소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출판사 또는 인쇄소 대표자의 신원진출서를 받던 기존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이를 등록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등록청은,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이 있을 때 매월의 등록상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쇄소에 대하여는 6월말과 12월말의 등록현황을 각각 그 다음 달 5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간소화해 매분기의 등록상황을 당해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보고케하고 있다.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 등록청은 위와 마찬가지로 매분기의 폐업상황을 당해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도모 및 등록청의 행정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 개정령에 대한 내용문의는 문화체육부 출판진흥과로 하면 된다(전화 720-3844).

한편 문화체육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발행되어 문화체육부에 납본된 국내 신간도서(CD-ROM 등 전자출판물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되는 제27회 문

화체육부 추천도서를 접수한다.

오는 10월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신청 접수의 서류는 소장양식의 신청서, 신청도서 2부, 원고지 세 장 이내의 도서내용 개요 등이다. 신청서는 문화체육부 출판진흥과와 출판문화협회에서 교부하며, 출판문화협회에서만 접수받는다.

선정된 도서는 일정부수를 구입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발표는 11월 4일.

문화체육부는 이와함께, 올해 7월 25일 시행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을 펼쳐 국민들의 독서의욕 고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출판문화협회,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주최로 이번달 말까지 열리는 '독서의 달' 행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우리가족 독후감 공모(가족구성원이 책을 읽고 작성한 독후감), 저명인사 모교탐방 강연(출신학교에서의 강연과 좌담회),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독서지도 순회강좌(29일 부산, 30일 서울) ▶새마을문고중앙회=알뜰도서교환시장(15개시도 인구밀집지역), 독서대토론회(26일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독서정책개발세미나(24일 10시,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21세기 아카데미 독서강좌(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른 산업부문에서 국가의 계획적 노력이 대안한데 반해 출판문화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낙후현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21세기의 질적 도약은 불가능하다. 97년 출판유통시장이 개방되면 이른바 문화전쟁, 출판전쟁, 정보전쟁이 무한 경쟁 속에 전개될 것이다. 출판문화산업의 국가정책화와 함께 출판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판단지는 출판사부문, 인쇄제작사부문, 유통센터, 주거부문, 공공문화 교육부문 등 5개부문으로 구성된다. 기획·편집·제작·유통 부문으로 연결되는 이들 출판의 전과정이 단지 내에서 크게 보아 하나의 일괄작업으로 진행된다.

우선 출판사부문은 단지의 중심에 들어서며, 예상면적은 7만5천평, 3백여 회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창의력과 기획력을 요구하는 출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건물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이며, 문화성에 비추어 미적 외관을 특별히 고려할 것이다.

인쇄제작부문의 예상면적은 2만8천평이고 1백여 업체가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이다. 이곳은 특별히 환경문제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유통부문은 교통의 편리를 위해 단지의 최남단에 들어서며 유통기구는 출판협동조합의 발전적 변신, 출판사와 서점들의 공동투자에 의해 설립된다. 현재 1만5천평의 주거시설 용지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단지 주변의 용지를 추가로 개발하여 별도의 주거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출판단지의 건설절정에 따르면 모든 시설이 99년 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변천하는 상황은 그 일정을 단축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

출판단지를 국가공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될 과제이다. 현재 출판단지 건설에서 가장 큰 변수의 하나는 토지분양가이다. 기반 시설이 설계되어 있지 않고 공사도 진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양가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 공단으로 개발할 경우 토지가격이 저렴해지고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주회사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설계와 공동공사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일 터이다.

이밖에 유통기구 건설비에 500~600억원, 공공문화교육부문 건설비에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예산지원 및 정부주관에 의한 건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출판단지가 건설되면 여러가지 면에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첫째가 생산유통비용의 절감이다. 출판계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 해에 유통되는 출판물은 2조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 액수는 유통센터가 정상가동될 때 2천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밖에 반품을 줄여 자원낭비형 출판구조를 극복할 수 있고, 직주통합, 출판기획의 전문화와 편집의 현대화, 경쟁력 제고와 생산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정리·이성수 기자

- 1 부활/톨스토이 2 좁은 문(외)/앙드레 지드 3 아오정전(외)/노신
- 4 대위의 딸(외)/푸슈킨·톨스토이 5 채털리 부인의 사랑/로렌스
- 6 폭풍의 언덕/에밀리 브론테 7 귀여운 여인(외)/체홉
- 8 첫사랑·전날밤/투르게네프 9 데미안(외)/헤르만 헤세 10 파우스트/괴테
- 11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괴테 12 헬릿(외)/세익스피어
- 13 마지막 잎새(외)/오 헨리 14 성(城)·변신/카프카 15 보바리 부인/플로베르
- 16 주홍 글씨(외)/호돈 17 테스/토머스 하디 18 신곡/단테
- 19 여자의 일생(외)/모파상 20 적과 흑/스탈달 21 검은 고양이(외)/포우
- 22 제인 에어/살로트 브론테 23 개선문/레마르크
- 24 무기여 잘 있거라(외)/헤밍웨이 25 실낙원·복낙원/밀턴
- 26 안네의 일기(외)/안네 프랑크 27 모를섬(외)/스티븐슨
- 28 그리스 로마 신화/토머스 불핀치 29 골짜기의 백합/발자크 30 성채/크로닌
- 31 나나/에밀 졸라 32 일리아드/호메로스 33 오딧세이아/호메로스
- 34 닥터 지바고/파스테르나크 35 누구를 위하여 조종은 울리나/헤밍웨이
- 36 37 죄와 벌/도스토예프스키 38 39 대지/필릭
- 40 세익스피어 4대 비극/세익스피어 41 어린 왕자·야간 비행/생텍쥐페리

혜원은 성실히 양서를 출판하겠습니다



혜원 세계 문학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8-24
전화 / 336-5804 333-9991, 2
FAX / 333-9996

혜원출판사

- 42 이방인·페스트/카뮈 43 분노의 포도/존 스타인벡 44 백경/허먼 멜빌
- 45 46 카라마조프 가 형제/도스토예프스키
- 47 48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마거릿 미첼 49 생의 한가운데/루이제 린저
- 50 백년 동안의 고독/마르케스 51 천국의 열쇠/크로닌
- 52 가시나무새/콜린 맥컬로우 53 달과 6펜스/서머셋 몸
- 54 55 56 레미제라블/빅토르 위고 57 세익스피어 희극선/세익스피어
- 58 지와 사랑/헤르만 헤세 59 위대한 유산/디킨스 60 61 안나 카레니나/톨스토이
- 62 63 데카메론/보카치오 64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65 타고르 선집/타고르
- 66 초당(草堂)/강용훈 67 아에네이스(외)/베르길리우스
- 68 멋진 신세계(외)/허슬러 69 세계의 신화 전설 70 71 72 전쟁과 평화/톨스토이
- 73 동물농장·1984/조지 오웰 74 인간 요건·사랑의 종말/그레이엄 그린
- 75 성채/생텍쥐페리 76 춘희·카르멘/뒤마 피스·메리메
- 에덴의 동쪽/존 스타인벡 ■ 장 크리스토프/로맹 롤랑
- 완전한 기쁨·다니엘라/루이제 린저 ■ 말테의 수기(외)/릴케
- 구토(외)/사르트르 ■ 유리알 유희/헤르만 헤세

* 혜원 세계 문학은 계속 나옵니다. *